

테마칼럼

비즈니스의 초면

미래창조경제

빛고을에 살며

광주포럼광주

방관자의 기쁨과 슬픔



안톤 솔츠

“

F1 대회는 광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적어도 7년 동안에는 매년 개최될 것이고 그 외 다른 모토스포츠 행사들도 연이어 개최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광주의 문화적 풍경과 지표를 변화시킬 것이다.

”

지난 몇 주간 기쁨과 실망감을 경험하게 된 일들이 있었다. 한편에선 마침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공식적으로 2010년 한국 경기일정도 확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단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한 5·18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옛 전남도청 별관을 부분 보존하여 아시아문화전당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따금 나는 한국 사람들로부터 “아, 나보다 더 한국 사람이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물론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외국사이고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도시의 발전모습은 한국인과는 다른 시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광주시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내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사실 최근에 광산구에 새롭게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이사 오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광주시가 커 나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가 보다 국제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힘껏 성원하고 있는 나로서는 광주의 변화를 늘 주시하고 있다.

이 글 서두에서 언급한 두 프로젝트는 광주의 국제화라는 목표지점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서 F1 대회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는 광주시를 위해서 2015년에 개최될 유니버시아

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한번만 하고 마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F1 대회는 광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적어도 7년 동안에는 매년 개최될 것이고 그 외 다른 모토스포츠행사들도 연이어 개최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광주의 문화적 풍경과 지표를 변화시킬 것이다.

나로서는 이 두 프로젝트와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인지 마침내 F1 대회 공식일정표 들어있는 한국의 경기일정을 보고는 기뻛고 반면에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 전당의 기존 설계를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애초에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높고 거대한 건축물로 서로를 능가하려고 하는 한국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아시아문화전당은 한국의 오랜 예향과 5·18민주화운동에 경의를 표하고 그것이 한국역사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기리는 건축물이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뻗어나갈 빛의 숲은 거대한 무등산과 광주시내를 배경으로 자연과 인간의 소통의 마당을 내주기 위해 위로 높은 대신 땅 밑으로 깊고 넓게 설계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보다. 그래서 나는 지금에는 이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 궁금하다. 물론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은 제 시

기에 완공될 것이고 결국에는 많은 나라의 문화가 한국에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데 확신한다. 그러나 여러 중요한 의미를 담은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타협점을 찾느라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을 결국에는 잃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F1 경기장이 전라남도과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 며칠 전 경기장 트랙건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영암에 갔었다. 곧 트랙이 될 곳을 걸어도 보고 레이싱 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할 관중이 서게 될 반쯤 지어진 그랜드스탠드에 올라가 보았다. 관중석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뒤로는 이제 막 석양 빛으로 붉게 물든 산들을 볼 수 있었다. 영암은 서울에선 꽤나 먼 곳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을 방문한 관중들은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기에 서울을 뒤로하고 반도의 남쪽을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어 그들은 또다시 남도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것이다. 그리고 그런 몸과 마음의 움직임들은 견고한 수도우물주의를 부수는 계기를 불러다 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에 이르다 보니 어느새 찌푸렸던 나의 눈살 위로 다시 미소가 번졌다.

〈조선대 독어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증고칼럼

백남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처럼 보인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호적상으로 부모는 있으나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녀 가운데는 부모가 그들의 필요에 제 공해 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성

복을 주시는 신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셨다.

만일, 우리가 순종해서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부모가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복을 시행하시는 것이다. 자녀에게 사랑의 말로 축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자.

게리 스몰리(Gary Smally)와 존 트랜트(John Trent)는 자녀 시대에 부모에게서 축복을 받지 못하여 일생을 통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장환경에 들어갈 틈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키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생애에 관한 것이다. 부모로서 의나 자신의 삶과 자녀를 향한 내 생각에 따라 그들의 생애가 결정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한 사람의 기록한 인생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에 따라 그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축복이라는 수단으로 자녀를 키우도록 하셨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의 생존 문제다. 하나님은 인생에

해 정서적인 고통과 장애, 물질의 남용,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성인들을 수년 동안 보아왔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자기에 게로 부르셨다. 그리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8:16을 보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즐겁다.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 자체가 즐거움이요 기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축복해야 한다. 자녀의 삶이 복되기를 비는 것으련해야 한다. 〈미문교회 목사〉

높은 수수료에 가맹점들 신용카드 기피... 소비자만 불편

얼마 전 헬스클럽에 등록하려 갔다. 그런데 등록 과정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 결제보다 10%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약간 불쾌하기도 했고, 바가지를 쓴다는 생각도 들어서 인근의 다른 헬스클럽에 갔다. 그러나 거기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

헬스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하느냐, 현금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10% 안팎으로 깎아주는 것은 헬스클럽들끼리 답답한게 아닌

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엇비슷했다. 업자들은 카드를 기피하는 이유가 너무나 높은 수수료 탓이라고 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걸로 안다. 수수료를 내려줘야만 업자들이 카드를 기피하는 걸 막고, 소비자들도 불편하지 않을 듯 하다.

▲류유경·광주시 남구 서1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기고

성우제



1997년 한국사회에 몰아닥친 IMF 경제 위기는 엄청난 국가적 고통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괴로워해야 했던 불행한 시기였다. 계속되는 기업의 부도사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감원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은 배고픔과 불안, 그리고 사회의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법적인 행위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다.

옛날 속담에 ‘사흘을 굶으면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남의

이 시행됐다. 바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으로 벌금 납입 의무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미납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되고, 사회봉사가 벌금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 등 불법의 정도가 중한 고액 벌금자는 대상에

생계형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신

집 담을 넘는 절도와 강도 등 현대판 장발장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 증대되었다. 이후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생계형 범죄’라는 용어는 방송 매체를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었고, 범죄유형 또한 다양화되면서 민생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IMF 이후 생계형 범죄가 폭증하자 정부는 1999년 2월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2천여 명을 특별사면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생계형 범죄 수배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특별조치를 실시했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에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생계형 범죄의 발생건수가 2000년 들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 대량실업, 소득감소 등 전체된 경제 불황이 지속될수록 민생침해범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9월 26일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고도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률

서 제외되며,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벌금 납부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소득세 납부 증명서와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사회봉사가 강제 노역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며 신청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미납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한 봉사 일수를 총 벌금액에서 공제하고 잔여 벌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20여 년간 노력한 보호관찰제도의 큰 성과이며, 발전의 시금석이 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비단 제도가 지닌 현실적인 효과성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직되고 위압적인 법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20년간 국민과 함께 나눔의 동반자로서의 열정적인 모습과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인 것이다.

〈광주보호관찰소장〉

운전중 큰 음악소리 사고위험 크다

며칠 전 호남고속도로를 운행 중이었다. 2차로에서 진행하던 봉고차 한 대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다. 돌발적 상황에 몇 번씩 경적을 울리며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면서 경고를 주었다.

그러나 그 운전자는 정말 무모하게 내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했다. 나는 황당하고 급한 나머지 충동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고 간신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쿵쾅거리는 커다란 음악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음악소리 때문에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진로변경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 중에는 가급적 음악의 볼륨을 적절한 선에서 틀어놓고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해야겠다.

▲김성준·광주시 서구 화정동

시설

국정감사에서 다시 확인된 ‘호남소외’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호남 소외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사는 물론 대학지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호남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핵심 부서 공무원 인사에서 호남출신 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에서는 기업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마저 특정지역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민중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읍)이 국토부 산하 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사외이사 명단’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236명 중 영남 출신이 95명으로 40.3%를 차지했으며 호남은 42명으로 17.8%에 그쳤다.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항만공사처럼 호남 출신 이사가 전무한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자율통합 관련 개입 강력 대처해야

행정구역에 대한 자율통합이 출발부터 뼈대고 있다. 공청회가 파행을 겪는가 하면 관련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등 벌써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시·군 통합은 워낙 예민한 문제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나 대립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조차 무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14일 무안에서 열린 무안반도 자율통합 지역 공청회가 해당 지자체 3곳 중 2곳이 불참했다고 한다. 지난 12일 순천에서 열렸던 광양만권 자율통합 공청회도 대상 지자체 4곳 중 3곳이 불참했다. 전남지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2곳 모두 반쪽 공청회에 그친 것이다.

이 같은 공청회의 파행은 여론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된다. 더욱이 공청회 파행에 공무원이나 특정단체가 개입했다면 이보다 위험천만한 일은 없다. 통합은 일부의 이익이 아닌 주민의 생활편의와 행정효율 극대화라는

호남 소외는 지역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각종 대학 지원사업을 하면서 ‘5+2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호남권과 영남권 간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이 경제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마저 호남을 소외시키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역시 광주시가 7개 대도시 중 최하위로 밝혀졌다.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권 중 인사라는 고질병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특정지역 위주의 인사구도로는 소통의 리더십이 발휘될 리 만무하다. 특정 지역민들이 인사 때마다 좌절감을 겪는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쯤 끊어질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특정지역의 패권주의적 인사구도에서 소통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다. 지역에 상관없이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분래의 취지에 맞춰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개입 움직임은 더 큰 문제다. 일부 무안 공무원들은 3만~5만원씩을 모아 통합 반대단체에 활동비로 지급하고 신안군에선 일부 면장들이 통합찬성 서명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적급별로 돈의 규모가 정해지고 면장들이 동원된 걸 보면 조직적인 관권개입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찬·반 여론을 조성한다면 이는 분명 법외행위다. 무엇이 주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바로 지자체의 몫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관권개입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시·군통합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통합이 돼야 할 것이다.

無等鼓

‘녹색성장’은 이제 무척 익숙한 말이 되었다. 또 그에 관한 실천전략도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성장의 강력한 수단으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가 급부상하고 있다. 플러처상 수상자인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코드 그린’에서 클린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스마트 그리드’를 적극 지지했다.

우리말로로는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는데,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IT를 통해 양방향으로 소통,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낮에는 높고 밤이면 낮아지는 들쭉날쭉한 전력수요 곡선이

스마트 그리드



대용 시장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국가 차원의 스마트 그리드 청사진 그리기에 한창이다. 내달이면 지능형전력망 법안과 실시간 전기요금제 방안, 또 수출산업화 방안 등이 나올 예정이다.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견인할 탄탄한 전력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다. 또 효율적 전력사용으로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이롭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시장이 최소 3천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휴

경탄해저 전력회사 측에서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예비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발전소를 또 지을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은 단가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 공급자 쪽에서는 발전 단가가 다르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엔 발전비용이 많이 드는 화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 F A X 227-0118 >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 F A X 222-8005 >	문화홍보국 2200-541 < F A X 222-0195 >	2200-541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 F A X 227-95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227-9500 >	2200-551
정 치 부 2200-634	여론대처부 2200-679	2200-679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02-773-9335 >	
경 제 부 2200-641	제 육 팀 2200-663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2200-691			
< F A 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